

## 2020년 희곡우체통 6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 <춘향목은 푸르다.>

2020년 희곡우체통은 코로나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5편의 작품을 낭독회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고한 작품들은 대부분 수준이 높아 X세대의 반란부터 포스트모던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개성이 강하고 문체의식도 좋은 작품들을 낭독회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0년은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멋진 해였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연기된 일정이지만 그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으로 또 한 편의 작품, <춘향목은 푸르다.>를 관객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춘향목은 푸르다.>는 여의도 개발을 위해 밤섬에서 살다 와우산으로 밀려난 1960년대 이주민을 다룬 작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960년대 후반은 경제개발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화려한 도시의 정경이나 자본주의적 삶이 시작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지요.

<춘향목은 푸르다.>는 그 욕망이 불붙기 시작한 초기, 한국 사회의 개발 지상주의 속에 삶의 터전을 잃고 밀려난 사람들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그들을 불행한 희생자로만 부각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웃음과 끈기로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가진 존재, 인간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건강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지요.

고백하자면 <춘향목은 푸르다.>를 읽던 서두 부분에서는 이 작품이 6차 낭독회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칠팔십 년대의 작품처럼 구성이나 인물이 낯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진정성은 진부함이나 낡음이라는 표피를 걷어내고, 시류나 세련됨을 간단히 이겨내지요. <춘향목은 푸르다.>가 그랬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작품이 가진 진정성은 붉고 푸른 생명력을 뿜어냈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리하여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우리를 지탱해 온 것이 화려한 도시의 네온이나 고층빌딩의 욕망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엄함을 잃지 않았던 민초들의 묵묵한 기운이라는 감동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작품은 희곡우체통이 관객 여러분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마지막 낭독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국립극단의 창작극을 위한 제도가 보다 새롭고 풍성하게 개편될 예정이거든요. 그동안 우체통의 희곡낭독회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해의 기운이 바뀌는 세모의 기운 속에 마지막 낭독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 뿌리내린 채 은근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춘향목의 향기를 맡으러, 또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만나러 극장으로 오십시오.

희곡우체통이 관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